

신세계 신축·확장 사업...“광주시, 투자행정 대전서 배워야”

건축·도시·경관·교통 4가지 통합 심의로 인허가 대폭 단축
지역 내 반대 여론 적극 중재...신속한 행정 대형 쇼핑몰 유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신세계 신축·확장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선 대전시의 신속한 투자 행정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대전시는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해 분산돼 있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시민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대전 신세계’ 유치가 성공,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5년 약성민원에 발목이 잡혀 대전에 ‘백화점 신축 사업’을 빼앗겼던 광주 신세계측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다시 한번 1조원 규모의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약성 민원과 더딘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와 달리 2015년 당시 대전 신세계를 유치한 대전시의 ‘투자행정’ 노하우를 들여다봤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2014년 대전시는 90년대 대전엑스포 개최 이후 내대지로 방치된 유성구 도룡동 과학공원 부지에 과학·문화·상업시설을 갖춘 사이언스몰 등을 세우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대형 쇼핑몰 유치가 필수였지만, 대전은 대형 쇼핑몰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이 ‘약재’로 작용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

반면 같은 시기 호남권에 대형 쇼핑몰이 단 한 곳도 없던 광주시는 광주 신세계측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있었다. 광주 신세계는 특급호텔과 함께 복합 쇼핑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금호월드 등 일부 상인 반대와 정치권 반대 등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광주 대신 대전에만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립을 결정했고, 대전시의 ‘사이언스 콤플렉스’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신세계그룹은 이후 대전에 5596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지상 43층 규모의 호텔, 백화점, 과학관·수족관·스포츠 시설을 갖춘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를 신축했는데, 현재 충청권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 대전에서도 광주처럼 대형 쇼핑몰 신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아쿠아리움’ 논쟁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 내 들어선 아쿠아리움이 수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시만 해도 대전에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던 사업자의 강한 반발이 지속됐다. 결국 대전시가 해결사로 나섰다.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을 통해 사업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대전지역 상인단체의 반대도 거셌다. 특히 지역 상인들은 대전 신세계 착공 이후 진행된 ‘대규모 점포 등록’ 단계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사업조정은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로, 대전시는 다시 한번 상인들을 설득하고 중기청과 협의 및 중재에 나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왔다.

신세계그룹도 화답 차원에서 대전시에 상생 기금 80억 원 등을 내놓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섰다.

대전시는 내부적으로도 인·허가 절차 하나 하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행정절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식으로 빠른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실제 대전시는 대전 신세계 건립과 관련해 건축, 도시, 경관, 교통 등 4가지를 통합 심의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반면 광주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11월 다시 한번 광주시에 9000억원 규모의 광주 대표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신청했지만, 민원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행정절차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지난해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민원과 행정 절차



전국체전 성화 출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발원 성화의 합화와 출발행사가 10일 오전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이 강화도 마니산과 해남 땅굴, 고흥 나로우주과학관, 목포 노을공원에서 채화되어 합화된 성화를 첫번째 주자인 장애인 체전 육상의 하성환 선수와 스쿼시 국가대표 양연수 선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5·1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를 분리하고, 10월 중순 내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일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강 시장의 말처럼 오는 13일로 예정된 공동(건축·도시) 심의위원회 절차가 잘 마무리된다고 해도 여전히 교통, 경관 심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인·허가 절차는 넘쳐난다는 점에서, 사업자측과 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 상황이 겹치면서, 그동안 공격 경영에 나섰던 신세계그룹마저 최근 건축 경영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광주시가 악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을 만들고 대전처럼 대규모 투자행정에 성공하기 위해선 대전시의 ‘신속한 합의 행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광주와 대전의 차이점은 투자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려는 의지력과 신속한 행정 결정 방식 등에 있다”면서 “대전시는 대전신세계 유치 이후 ‘투자자에 긍정적인 자치단체’라는 이미지가 얼음 정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형 쇼핑몰 유치를 희망하는 광주시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사라진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관련 기사 7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번 개편안은 입시의 양측인 수능과 내신 모두 변화가 적지 않다. 현재 중2가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면서 대입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능의 경우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이고,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치를 수 있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많은 학생이 적성과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응시자 모두 ‘통합사

모든 수험생 공통과목 응시
내신 9등급 → 5등급 변경

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해 과목 간 벽을 허물고 융합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점단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수학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을 고려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의 선택과목(심화수학)으로 포함하는 안을 열어두고, 국교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를 등은 현행 수능과 똑같다.

수능과 별도로 고교 내신 평가도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교 내신 평가체제는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일원화하고, 1등급은 기존 4%에서 2025학년도부터 10%로 늘린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고졸 조대부고 2023 조대부고인
충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일시 : 2023. 10. 15(일) 09:30
장소 : 모교운동장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봉규

Mercedes-Benz Certified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